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2년도 제47호

‘공부하는 학생선수’

‘금메달과 서울대’를 동시에, 학생 선수에 생존법

온승원, 류석규 YTN 기자

빙상계..또 성폭력 사건

또 ‘빙상 성폭력’... 쇼트트랙 코치 10대 제자에게 성범죄

홍지호 MBN 기자

제주지역 학교 운동부

선수도, 코치도 부족한 제주 운동부... “3년간 학생선수 64명 전출”

홍수영 뉴스1 기자

2022 카타르 월드컵

검은 장갑부터 무지개 완장까지...스포츠는 정의를 외쳐왔다

강윤주 한국일보 기자

금지된 무지개색, 체포된 선수...‘인권 월드컵’ 물 건너가나

안혜민 SBS NEWS 기자

“인권? 유럽이 그런 말할 자격 있나” ...FIFA회장, 카타르 대놓고 옹호

허경주 한국일보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금메달과 서울대'를 동시에, 학생 선수의 생존법

'공부하는 운동선수',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 수능을 마친 학생 선수들은 유독 진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운동과 공부 사이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왓슈가 들어봤습니다. 작년 여자육상 400m 한국 최고 기록을 세우고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휩쓸고 있는 주인공. 박다운 선수입니다. 그녀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수능을 거쳐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는 것. 박다운 선수는 육상과 공부 모두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다운 / 육상선수, 서울대 재학 : 부상이 좀 잦았어서 운동선수를 계속하면 제 몸이 망가질 것 같고, 운동선수한테는 부상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대학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학생 선수는 부상과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운동을 그만두거나, 어렵게 프로에 입단하더라도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은퇴하게 됩니다. 이들이 다른 진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박다운 / 육상선수, 서울대 재학 : 미래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운동에만 전념했다가 제 의지가 아니더라도 운동선수를 그만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난 운동밖에 한 게 없는데 뭘 해야 하나.'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를 위해 학생 선수들이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출석인정제'와 '최저학력제'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생 선수들의 학업 성취도 또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김지환 / 전 아이스하키선수, 직장인 : (운동할) 당시를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공부하라는 게) 맞는 얘기였었다. '운동으로 성공을 못 할 것 같으니까 다시 공부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공부를 시작하기 더 수월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학생 선수에 대한 단편적인 학습 제도가 오히려 그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차별 요소가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다운 / 육상선수, 서울대 재학 : 시합도 같이 뛰면서 또 다른 방편으로 학습권을 보장해줘야지, 시합을 못 뛰게 하는 건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김택천 /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장 : 학습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너는 수업을 들어갔어, 며칠을 (공부)했어'라고 만들어주는 게 학습권 보장일까요? 행복 추구권으로서 운동하고자 하는 권리 역시도 인정받아야되므로 그 환경과 제도를 교육 정책 당국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선수들은 교실과 운동장 모두에서 꿈꿀 수 있는 학교를 바랍니다.

[김택천 /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장 : 본인에게 알맞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국가가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학생 선수 중심의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박다운 / 육상선수, 서울대 재학 : "학업과 운동 둘 다 챙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힘들었던 것의 두 배 정도 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또 '빙상 성폭력' ... 쇼트트랙 코치 10대 제자에게 성범죄

【앵커멘트】

미성년 쇼트트랙 선수들을 가르치던 코치가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이런 피해 정황을 발견하고 고소했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아이스링크장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40대 쇼트트랙 코치 A 씨가 미성년 제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0대 제자들을 집으로 데려가 불법 촬영을 하거나 운동을 가르치며 강제로 추행했다는 겁니다.

이런 피해 사실은 학부모들이 경찰에 A 씨를 고소하면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해당 아이스링크장에서 학생 선수 10여 명을 가르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아이스링크장 관계자

- "선수반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우리 회사와는 관계없이 1년 연대관을 해서 타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알지를 못해요."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경찰은 A 씨를 강제추행과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 조사를 진행하면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코치도 제자 성폭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데 이어 빙상계가 또 성폭력 소식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선수도, 코치도 부족한 제주 운동부... “3년간 학생선수 64명 전출”

제주지역 학교 운동부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운동부는 학생선수가 부족해 폐지했는가 하면 코치가 없어 훈련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의회는 22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안덕면)은 도내 학생선수 육성 문제와 읍면지역 학교의 운동부 지도자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하 의원은 “도내 학생 선수들의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도교육청에 등록된 수는 1039명으로 지난해 대비 41명이나 감소했다”며 “최근 3년간 도내 창단·신설된 운동부는 전무하고 5개 운동부는 학생선수 부족으로 폐지됐다. 이 기간 타지역으로 전출 간 학생 선수는 64명이지만 제주로 전입한 학생은 46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는 “학생선수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유 중 하나는 특기자 자격 기준에 있다. 선발 규칙에는 최근 연속해서 2년 이상 또는 2회 이상 등록된 선수라는 자격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는 제주에만 있는 규정”이라며 “코로나19로 체육대회 취소 및 축소로 인해 부득이하게 2년 연속 활동하지 못한 학생선수들이 자격 기준으로 인해 운동선수의 꿈을 접어야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또 “체육특기자를 지도하는 운동부 지도자인 코치에 대한 처우도 열악하다. 운동부 코치는 읍면지역 및 종목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 등이 책정되고 있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안타깝게도 현재 5개 운동부에는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김 도교육감은 “2022년 기준 도내 학생선수 초등학교 7명, 중학교 12명, 고등학교 9명 등이 도외로 전출했다. 종목별로는 축구 19명, 야구 5명 등 인기 종목의 전출인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서도 학부모 설명회를 통한 진로진학 안내 및 학교 홍보 외에는 보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 “도내 학교 운동부 지도자로는 초등학교 26명, 중학교 32명, 고등학교 26명 등을 채용하고 있는데 최근 근속수당, 명절 휴가비 등이 인상됐다”며 “고용안정을 위해 채용조건에 입상성적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고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이 주장한 체육특기자 자격 기준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2016년 규칙이 개정된 이유는 1년만 선수로 등록한 후 평준화 고등학교로 입학해 선수활동을 포기하는 사례로 인한 일반학생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현행 제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국대회 입상 성적 등 운동선수로서의 진로가 확실할 경우는 체육특기자 입학에 허용하는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체육대회 참가 어려움에 대한 구제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검은 장갑부터 무지개 완장까지... 스포츠는 정의를 외쳐왔다

초록색 그라운드와 차별과 탄압에 반대하는 저항의 무대로 탈바꿈하는 순간은 짧지만 강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카타르 월드컵 B조 조별리그 이란과 잉글랜드 경기가 열린 도하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 경기 시작을 알리는 심판의 휘슬이 울리기 직전 잉글랜드 선수들은 일제히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세상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무언의 외침이었다.

잉글랜드를 비롯한 일부 유럽 대표팀 주장들은 카타르 정부의 성소수자 인권 탄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다양성과 포용의 의미를 담은 '무지개 완장'을 착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기 중 착용시 옐로카드 부과까지 꺼내 든 국제축구연맹(FIFA) 반대에 부딪히자, 무릎꿇기 퍼포먼스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상대팀 이란 선수들은 '침묵'으로 응수했다. 국가가 연주될 때도 따라 부르지 않았고, 골을 넣었을 때도 환호하지 않았다. 이들은 '행동하지 않음'으로 행동했다.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힌 뒤 의문사한 22세 마흐사 아미니 사건이 촉발한 '이란 반(反)정부 시위'와 연대하려는 무언의 손짓이었다. 관중석도 화답했다. 응원석 곳곳에 '여성, 생명, 자유'라고 적힌 손팻말과 현수막이 나부꼈고, 페르시아어로 '자유'를 뜻하는 '아자디' 함성이 울려 퍼졌다. 그날, 그곳, 스포츠와 정치가 만들어낸 시너지는 "축구 경기, 그 이상" (영국 BBC 방송)이었다.

역대로 스포츠와 정치는 섞여서도, 엮여서도 안 될 '잘못된 만남'으로 규정돼 왔다.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 정치를 끌어들이지 말자'는 게 올림픽과 월드컵 등 세계적 스포츠 대회가 참가 선수들에게 내건 불문율이었다. 그러나 스포츠 정신에 정치를 넘어 정의를 담으려는 시도는 꾸준했고, 때때로 그 간절한 외침은 정치가 못 한 일을 대신 해내기도 했다.

인종 차별 저항의 상징 '검은 장갑' 시위 이후 정치 중립 규정 만들어져

스포츠 무대에서 논란이 된 정치적 의사표현의 시초는 '검은 장갑'이었다. 1968년 10월 멕시코 올림픽 남자육상 200m 경기 시상식. 미국의 토미 스미스(금메달)와 존 카를로스(동메달)가 검은색 스카프를 두른 채 시상대에 올랐다. 미국 국가가 흘러나오자 두 선수는 성조기를 외면한 채 검은 장갑을 낀 주먹을 하늘 높이 치켜들었다. 흑인 인권운동을 이끌다 암살당한 마틴 루서 킹 목사에 대한 추모와 인종 차별에 대한 저항의 표시였다.

퍼포먼스의 대가는 가혹했다. 올림픽 경기에서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다는 이유로 두 선수는 선수촌에서 추방당했고, 선수 자격 정지로 더 이상 올림픽에 나갈 수 없게 됐다. 국제올림픽 위원회(IOC)는 이 사건 이후 올림픽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규정을 만들었다.

"올림픽이 열리는 장소, 경기장 등 기타 지역에서 어떠한 종류의 시위나 정치적·종교적·인종적 선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IOC 헌장 50조 2항이다. 국제축구연맹(FIFA)도 축구 경기장 안에서의 정치 및 종교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발맞췄다.

이후 헌장 50조 2항을 필두로 한 정치 행위 금지 규정들은 선수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옹호하는 '족쇄'로 활약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 한국의 박종우 선수도 일본과의 축구 동메달 결정전에서 승리한 직후 '독도는 우리땅'이란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경기장을 뛰어다닌 것이 문제가 돼 A매치 2경기 출장 정지 및 400만 원의 벌금을 내는 징계를 받았다.

다음 장 계속

지난 1월 세계적 테니스 대회인 호주 오픈에선 '평좌이는 어디에'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응원에 나선 관중들을 주최 측이 쫓아내는 일도 있었다. 평좌위는 중국의 유명 테니스 선수로 중국 전 고위 공무원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뒤 행방이 묘연해지며 실종설이 돌았던 인물이다. 주최 측은 처음에는 정치적 구호는 금지된다고 원칙론을 밝히며 강경 대응했지만,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평좌이 티셔츠' 착용을 마지못해 허용하기도 했다.

'돈줄' 앞에선 작아지는 '선택적 중립', 선수들만 옥죄는 '이중잣대' 비판도

"IOC가 정치적 편을 든다면, 수백 개의 국가들을 올림픽에 하나로 모을 수 없다. 올림픽의 정치 이슈화는 올림픽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 등 인권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지만,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의 답변은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였다. 정치적 의사 표현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빌미가 돼 통합과 평화의 방점을 찍은 올림픽 정신을 방해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같은 원칙론이 현실에선 '선택적 중립'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IOC와 FIFA 등이 '돈줄'을 쥐고 있는 후원사나 개최국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20 도쿄 하계 올림픽 당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사용 금지에 대해 IOC가 모호한 태도를 보인 게 대표적이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FIFA는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무지개 완장을 막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경기 중 선수들의 무지개 완장 착용을 불허하며 으름장을 냈고, 무지개 옷을 입거나 상징물을 부착한 축구 팬들은 경기장 입장이 거부되기도 했다. 동성애를 불법으로 처벌하는 카타르 정부를 다분히 의식한 행보였다.

FIFA가 카타르 정부의 '심기 경호'에 적극적인 걸 두고, 역대급 수입을 안겨줬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역사상 가장 비싼 월드컵'으로 불리는 이번 월드컵 유치 비용은 300조 원. 이전 8번의 개최국보다 2배 이상 많은 돈을 썼다. 뿌린 돈이 많은 만큼 FIFA도 상당한 돈방석에 앉았다. AP 통신은 FIFA가 카타르 월드컵 덕분에 10조 원을 넘게 벌어들였다고 추산했을 정도다. TV 중계권료와 경기장 입장료, 공식 후원 대가 등의 명목으로 챙긴 금액이다.

'검은 장갑' 시위의 주인공 존 카를로스 선수는 지난해 5월 영국 일간 가디언 기고 글에서 "지난 53년 동안 돈을 좇아온 IOC의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정치적 중립 원칙 자체에도 의문부호가 찍히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반론이다. 또 차별 반대, 전쟁 반대처럼 인권과 평등, 평화, 다양성 등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는 메시지가 올림픽 정신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 역시 무리라는 지적이다.

스포츠 무대에서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한 사례도 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코트디부아르 국가대표 주장 디디에 드록바는 수단과의 경기를 승리로 이끈 뒤 취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일주일만이라도 무기를 내려놓자"고 울부짖었다. 고국의 내전을 멈춰달라는 호소였다. 드록바의 절절한 외침이 가닿았던 걸까. 거짓말처럼 정부군과 반군은 정말로 전쟁을 멈췄고, 2007년 평화협정까지 체결했다. 정치가 못했던 일을 스포츠가 해낸 것이다.

FIFA도 이 비판에서 예외일 수 없다.

IOC나 FIFA가 국가 권력과 자본 권력에는 관대하면서, 선수들에게만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는 행태가 계속되자 '이중잣대'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지만, 가장 정치적인 기관'이라는 '내로남불' 꼬리표가 따라 붙는 이유다.

"중립은 침묵,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다" ... 정치 넘어선 '정의' 허용돼야

계속된 저항의 외침에 변화도 시작됐다.

2019년 페루에서 열린 팬아메리칸 게임 시상식에서 국가 연주 중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주먹을 들었던 미국 해머던지기 선수 그웬 베리. 미국 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USOPC)는 51년 전 IOC가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를 억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 위반 이유를 들어 제재를 가했다.

하지만 여론은 들끓었고, 백악관도 "헌법이 부여한 평화적으로 항의할 권리를 존중한다"며 베리를 옹호했다. 결국 USOPC는 베리의 퍼포먼스를 계기로, 메달 시상식 때 선수들이 '무릎꿇기' '주먹 들어올리기' 등 인종 차별 반대 표시를 해도 징계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 변화는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졌다.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의 전·현직 선수, 인권운동가 등 150명이 IOC에 정치적 중립 규정의 포괄적 재검토를 요청하며 50조 2항의 '완고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중립을 지키라는 건 침묵하라는 의미다. 침묵은 불평등을 받아들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다." (그웬 베리) 인간의 보편적 권리와 가치를 지키려는 행동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건 없다. 1968년 검은 장갑에서 2022년 무지개 완장까지. 정치를 넘어 정의를 외쳐온 스포츠 선수들이 만들어 나갈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금지된 무지개색, 체포된 선수... '스포츠 인권' 물 건너가나

"무지개색 차단하라"...주장 완장도 변경

위 사진은 팔에 착용하는 완장인데요, 무지개색 하트에 숫자 '1'과 '원 러브'(One Love)'가 적혀 있죠. 성소수자 인권과 더 나아가 다양성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축구팀 주장이 이 완장을 차고 경기를 치르는 캠페인이 있는데요, 네덜란드가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에 앞서 차별에 반대하고 다양성과 포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했다고 해요. 이런 캠페인을 카타르 월드컵까지 이어가자는 분위기가 있었고, 잉글랜드·독일·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스위스·웨일스 7개 팀 주장들은 개막 전까지만 해도 무지개 완장을 차고 경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경기장에서 무지개 완장은 볼 수 없었습니다. FIFA가 '엘로 카드'를 주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이죠. 축구팀 주장들은 대신 FIFA가 제안한 'NO DISCRIMINATION'(차별 반대) 완장을 착용했죠. 아래 사진을 보면 지난 21일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 해리 케인이 무지개 완장 대신 'NO DISCRIMINATION' 완장을 착용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완장에도 이런 속사정이 있던 거죠.

근데 무지개색 옷을 입거나 상징물을 부착한 축구 팬들의 경기장 입장마저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위 사진 속 인물은 전 덴마크 총리 헬레 토르닝 슈미트인데요, 무지개 빛깔 소매의 옷을 입고 경기를 보고 있죠. 하지만 일반석 축구 팬이었다면 경기장 입장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죠. 카타르에서는 무지개 무늬 모자를 압수당했다는 축구 팬, 무지개 문양이 들어간 깃발 때문에 경찰에 단속된 브라질 기자 등 현지의 엄격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례가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항의가 이어지자 FIFA가 무지개 모자와 깃발의 경기장 반입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합니다.

'무지개 완장' 법정 공방 가능성

'무지개 완장'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네요. 독일과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FIFA)을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죠. 독일축구협회 대변인은 "FIFA가 다양성과 인권의 표현을 금지했다. FIFA는 자세한 설명 없이 스포츠 제재(sporting sanctions) 위협을 가했다"고 제소 검토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FIFA도 '무지개 완장 제재'에 할 말이 있는데요, '정치로부터의 자유'라는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조치였다는 거죠. 실제로 FIFA 규정에는 그런 원칙에 따라 선수 장비에 정치적, 종교적 의미를 내포한 문구나 이미지를 담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표팀의 박종우도 2012년 런던 올림픽 축구 준결승 일본전에서 '독도는 우리 땅' 플래카드 때문에 출전정지 제재를 받은 적이 있고요.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경기장 안팎의 체육 분쟁을 판정하는 특별법원이고 스위스에 있다고 합니다. CAS는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심리 속도를 조절하는데요, 완장 문제는 월드컵 끝나면 판결의 의미가 묻히니까 제소하면 대회 끝나기 전에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료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84913&plink=ORI&cooper=NAVER

“인권? 유럽이 그런 말할 자격 있나” FIFA 회장, 카타르 대놓고 옹호

“월드컵은 북한에서도 열 수 있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개최국 카타르의 열악한 인권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월드컵은 정치·이념과 무관하게 어느 나라에서든 열 수 있다는 게 주장의 근거다. 특히 유럽 각국이 과거 유색인종을 노예 삼았던 과거를 들춰내는 등 ‘서구의 위선’을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FIFA는 정치 단체 아냐”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인판티노 회장은 최근 “FIFA는 축구 단체이지 정치 단체가 아니다”라며 “어떤 나라든 월드컵 개최국이 될 수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몇 년 전 남한과 북한이 여자 월드컵을 공동 개최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다”라고도 언급했다. 그가 언제, 어디서 이 같은 발언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번 월드컵에 출전하지도 않는 북한을 화제로 끄집어낸 것은, 2022 FIFA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를 두고 “자격이 없다”는 비판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카타르는 열악한 외국인 노동자 처우와 성소수자 탄압 등 인권 문제로 수개월간 서방 국가의 비판을 받아왔다. 경기장과 호텔 등 월드컵 기반 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임금 체불과 노동력 착취가 자행됐고, 6,700명 넘는 이주 노동자가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카타르 정부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여성과 성소수자를 탄압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인판티노 회장 발언은, 월드컵은 정치적 이념을 뛰어넘는 만큼 인권 논란은 묻어두고 축구에만 집중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사실상 ‘스포츠의 비정치성·중립성’을 명분 삼아 FIFA와 카타르를 향한 비난을 차단한 셈이다.

“유럽은 카타르 비판 자격 없어”

인판티노 회장의 ‘카타르 감싸기’ 행보는 개막 하루 전까지도 계속됐다. 19일 도하에서 진행된 개막 전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서방국을 공개 저격하며 카타르 옹호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2014년 이후 유럽에 들어오려던 외국인 2만5,000명이 숨진 사실을 거론하며 “유럽이 정말 이주 노동자 운명에 관심이 있었다면 유럽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인들이 지난 3,000년간 해 온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3,000년 동안 사과해야 한다. 카타르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과거 서양인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인들을 노예 삼아 인권유린을 자행한 점을 감안하면, 서구가 주도하는 인권 논쟁은 위선이라는 의미다. 인판티노 회장은 이탈리아계 스위스인이다.

인판티노 회장은 “개인적으로는 하루 세 시간 정도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카타르의 ‘기습 금주령’도 옹호했다.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된 카타르는 당초 월드컵 기간에만 일부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월드컵 개막을 이틀 앞둔 18일 돌연 경기장은 물론 주변에서도 판매를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인권단체 “FIFA가 인권 비판 무시”

이날 인판티노 회장의 카타르 지지 발언은 한 시간이나 이어졌다. 통상 개막 직전 기자회견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 내용이 핵심 주제가 돼 온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이번 월드컵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인판티노의 발언은) 익숙한 주제로 가득 찬 기자회견을 기대하며 모인 언론인 수백 명을 놀라게 했다”고 꼬집었다.

인권을 뒷전으로 미뤄 놓은 듯한 발언에 인권단체는 거세게 반발했다. 스티브 콕번 국제앰네스티 사회정의 책임자는 “FIFA는 인권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무시했고, 월드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주 노동자들이 지불한 막대한 대가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평등·존엄·보상에 대한 요구는 ‘문화 전쟁’으로 취급돼선 안 되는 보편적 인권”이라고 꼬집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연습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선수들이 지켜낸 야구부

<http://www.jibs.co.kr/news/replay/viewNewsReplayDetail/2022111821141420536?feed=na>

박문옥 전남도의원,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교 체육 축소...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으로 극복한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09280>

안양시청, 8356명에 장학금...황대헌·서휘민 선수 등 배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12886681>

충주교육지원청, 시청 실업선수단 연계 스포츠 진로교실 운영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1125000571>

학생들 배구보러 오세요...OK금융그룹, '무료 입장' 이벤트 실시

http://www.mydaily.co.kr/new_yk/html/read.php?newsid=202211251036941611&ext=na&utm_campaign=naver_news&utm_source=naver&utm_medium=related_news

[삶] 박세리 "선수시절 지옥같은 슬럼프...대인기피증 있었다" (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8063600501?input=1195m>

인권단체, FIFA회장 "북한 월드컵 가능" 발언에 "무신경" 비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85345&plink=ORI&cooper=NAVER

대한체육회, '스포츠 영웅' 이봉주 헌액식 내일 개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87124&plink=ORI&cooper=NAVER

전주 한바탕국민체육센터, 최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63455>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